

요와 북송(10~11세기)



© 윤영인, “10~13세기 정복왕조 역사의 기본사료와 연구현황”; 윤영인 편, 『10~18세기 북방민족과 정복왕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9)

II. 거란사의 기본사료와 연구현황

- 기본사료의 결핍

- 거란의 칸(황제)이 한족방식의 ‘수도’에 머물지 않고 춘하추동 사계절에 장소를 옮겨 다닌 유목민족 전통의 날발[捺鉢] 제도(姚從吾, 1959)

- ‘거란-여진’, ‘여진-몽골’의 교체기의 전쟁에서 대부분 멸실, 거란 문자 문헌이나 번역서는 현전하지 않음. 20세기 이후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

- 916~1125년까지의 거란왕조 역사를 다룬 기본 사료인 『요사(遼史)』는 거란이 망한 후 무

려 220여 년이 지난 1343~1344년에 몽골제국에 의해 편찬

- 중국의 24사 중 명초에 편찬된 『원사(元史)』와 더불어 가장 문제점이 많음. 『송사(宋史)』, 『금사(金史)』, 『구오대사(舊五代史)』, 『신오대사(新五代史)』, 『속자치통감장편(續資治通鑑長編)』 등 동시대의 다른 사료와 불일치 모순
- 중화서국(中華書局)의 『요사』 교점본(交點本)

-1247년 엽릉례(葉隆禮)가 송나라 문헌을 토대로 찬술한 『거란국지(契丹國志)』

-거란, 금과의 관계에 대한 다량의 사료, 몽골이 고려에 보낸 외교문서인 첩문이 수록된 『고려사(高麗史)』

-명나라 근 3세기 동안 중원에서 편찬된 거란 관련 문헌은 양순길(楊循吉)의 『요소사(遼小史)』 1권에 불과

- 1950~1960년대 중국에서 거란, 탕구트, 여진의 역사는 송나라의 ‘부록’으로 간략하게 취급

- 1979년 이후 통사들은 거란, 탕구트, 금에 각각 장을 할당하여 서술하기 시작. ‘중화민족다원일체(中華民族多元一體)’와 ‘통일다민족국가(統一多民族國家)’론이라는 정치적 배경 존재

- 거란 역사의 기본사료에 대한 정리는 1980년대에 시작, 90년대까지 활발하게 출간

- 일본학계: 시마다 마사오[島田正郎]

- 칼 비트포겔(Karl Wittfogel) & 펑자성[馮家升], *History of Chinese Society: Liao*(1949) 『요사(遼史)』의 내용을 토대로 거란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거란사 연구의 역작

- *The Cambridge History of Early Inner Asia*(1990)는 구석기 시대에서 몽골제국 이전까지의 내륙아시아 역사를 다룸. 마지막 장(章)이 거란과 여진

- 서구 학계의 거란사 연구성과를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제6권 1장의 거란사 부분으로 트위체트와 티에쯔(Klaus-Pieter Tietze)가 집필

- David C. Wright, *From War to Diplomatic Parity in Eleventh-Century China*(2005) 군사, 정치, 외교의 다각적 시각에서 송과 거란의 관계와 특히 전연의 맹약을 고찰하였고, 맹약 이후 11세기 양국 간의 평화로운 외교 관계의 의례와 내용

- Naomi Standen, *Unbounded Loyalty: frontier crossings in Liao China*(2007)

거란을 당을 계승한 국가로 설정하면서 한족 중심적 시각의 당송 교체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 ‘중국(China)’이라는 모호한 용어 대신 ‘북방(North)’과 ‘남방(South)’을 사용.

### III. 탕쿠트사의 기본사료와 연구현황

- 대하에 대한 1차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요사(遼史)』, 『송사(宋史)』, 『금사(金史)』의 열전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에 의거할 수밖에 없음

- 19세기 이전 문헌은 남송시대 왕칭[王稱]이 저술한 『동도사략(東都事略)』의 부록이 유일

- 『서하서사(西夏書事)』(19세기 초), 『서하기사본말(西夏紀事本末)』(1884), 『서하기(西夏記)』(1943)
- 20세기 초 돈황, 카라고토에서 탕구트 문헌들이 발견되면서 전환기
- 1970년 말 이래 중국 학계에서 탕구트 역사 연구 활성화
- 외국 학계의 연구성과는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제6권 제2장에 반영

#### IV. 여진사 기본사료와 연구현황

- 가장 중요한 사료는 1344~1345년에 몽골제국이 편찬한 『금사(金史)』. 금대의 실록과 문집 등에 의거하여 편찬, 『요사(遼史)』와는 대조적으로 24정사(正史) 중 잘 편찬된 역사로 인정, 『송사(宋史)』에 비해서도 내용의 상호모순이 적은 편. 다른 정사에는 없는 교빙표(交聘表) 3권을 포함, 대외관계사에 좋은 자료
- 중화서국의 교점본(1975)

- 『대금국지(大金國志)』(13세기 중반), 『삼조북맹회편(三朝北盟會編)』(1196)
- 거란, 탕구트, 금사연구는 몽골제국과 명나라 시기에는 거의 전무
- 중국 학계의 본격적인 금대사 연구는 1978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
- 1980년 이후의 중국 학계 연구동향은 김위현,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 연구』(동북아역사재단, 2008)에 자세히 정리

- 20세기 말까지 금사 연구는 일본이 주도
- 여진과 조선 관계: 가와치 요시히로[河內義弘], 하수미 모리요시[荷見守義], 로빈슨(Kenneth Robinson), 기무라 다쿠[木村拓]

- Michael Rogers: 한국과 중원의 사료를 활용, 금과 고려의 관계에 대한 일련의 논문들  
Michael C. Rogers(1959), "Koryo's Military Dictatorship and Its Relations with Chin," *T'oung Pao* 47, pp. 43~62 ; Michael C. Rogers(1959), "Sukchong of Koryo : His Accession and His Relations with Liao," *T'oung Pao* 47, pp. 30~42 ; Michael C. Rogers(1961), "The Regularization of Koryo-Chin Relations (1116~1131)," *Central Asiatic Journal* 6, pp. 51~84 ; Michael C. Rogers(1983), "National Consciousness in Medieval Korea : The Impact of Liao and Chin on Koryo," M.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pp. 151~172, Berkeley and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erbert Franke and Hok-lam Chan(1997), *Studies on the Jurchens and the Chin Dynasty*, Ashgate Publishing.

#### V. 거란, 탕구트, 여진사 연구의 문제점

- '한화(sinicization)', '문화변용(cultural adaptation)', '동화(assimilation)' 시각의 한계, 북방민족의 입장에서 '한화' 이론 재고의 필요성

- ‘한화’의 반대 개념으로 중원지역의 ‘알타이화’에 대한 연구도 필요
- 10~13세기의 국제 관계는 한족왕조와 정복왕조의 타협. 당시의 ‘맹약 체제’ 혹은 ‘다원적 국제 관계’의 성립은 한족 중심적 조공 체제의 와해를 통해서만 가능. 중원의 전통(예를 들면 춘추전국시대)과의 차이
- 한국 학계가 북방민족과 정복왕조 연구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 윤영인, “서구학계의 거란·금 연구: 한화, 이원적 통치체제와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윤영인 편,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 시각과 최근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2010)

#### I. 정복왕조의 역사=중국사로 귀속시키는 문제

-‘한화’ 이론 비판한 비트포겔(Karl Wittfogel and Feng Chia-sheng, *The History of Chinese Society : Liao (907~1125)*, 1949), 『케임브리지 중국사(Cambridge History of China)』 6권, (Herbert Franke and Denis Twitchett eds., 1994), 중국학계 한족중심적 시각의 몰역사성 비판한 모트(Frederick W. Mote, *Imperial China 900-1800*, 1999)도 예외가 아님

\* 스탠든(Standen) 정도가 예외

#### II. 정복왕조의 한화에 대한 시각

-‘중화민족대가정(中華民族大家庭)’: 중국의 역사를 북방민족과 한족의 융합과 중화민족의 출현으로 서술하는 중국학계의 현재주의 문제

-‘한화(Sinicization)’ 이론: 10~13세기 거란과 여진이 중원 한족의 관습·의례·문학 및 문화를 채용하면서 ‘중국’의 왕조가 되었다는 한족중심 동화흡수이론

\*낙후된 북방 유목민족/ 선진 한족의 이분법에 반대, 유목과 농경 두 문명지역을 통합된 구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제기

Barfield, Thomas J.(1989), *The Perilous Frontier : Nomadic Empires and China, B.C. 221 to A.D. 1757*, Cambridge and Oxford : Blackwell.

\*비트포겔

-거란과 한족의 관계는 ‘융합(fusion)’이 아닌 ‘공생(symbiosis)’관계. 사회경제적 조정과 개혁이 있었지만 거란사회의 이원적 체제, 풍속, 종교적 전통은 지속

-‘창조적 오해(creativemisunderstanding)’: 한족제도가 부족사회에 적용되면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거란이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새로운 한족제도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질적인 체제와의 상호 모순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 여전히 한족문화의 ‘선진성’을 강조하는 문제

\*모트

-‘한화’의 틀보다는 문화적 변용(Acculturation), 다문화적 적응(multicultural adaptation), ‘창조적 오해(creative misunderstanding)’ 개념 선호

-한화를 표면적/부분적으로 인정하더라도 거란이 자신의 문화적 열등성을 인정하였다는 가치

관의 변화를 입증할 수 없으며 ‘거란성(Khitanness)’ 지속

-‘한화’에 있어 거란과 금의 차이: 여진이 중앙집권화, 관료화, 과거제도의 시행에서 거란보다 높은 ‘한화’

a. 여진족의 낮은 문화 수준

b. 제국의 지리적 넓이와 인구구성의 차이: 거란은 북중국의 일부[연운십육주(燕雲十六州)]만을 통치, 금나라는 북중국[회하(淮河) 이북] 대부분을 통치/ 거란시기 한족인구는 거란족의 3배에 불과, 금대에는 여진족의 10배(Franke and Twitchett, 1994)

-정복왕조와 한족왕조 대외정책의 차이: 한과 송은 북방민족에 물자를 제공하고 평화를 추구한 유화책을 선택, 거란은 물론 전형적인 ‘중원’ 왕조였던 금나라 역시 북방 초원에 대한 정책에서만은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실행

Barfield, Thomas J.(1989), *The Perilous Frontier : Nomadic Empires and China, B.C. 221 to A.D. 1757*, Cambridge and Oxford : Blackwell.

- 로스키(Evelyn Rawski): 만주족 중심의 관점(a Manchu-centered view) 역설

청나라 제국 형성과 운영을 만주족과 다양한 내륙아시아 민족과의 문화적 연결성, 제국 내의 한족지역과 비한족지역 통치에서의 차별성 등에서 찾아야 함

Rawski, Evelyn S.(1996), “Reenvisioning the Qing : The Significance of the Qing Period in Chinese History,” *Journal of Asian Studies* 55-4

### III. 이원적 통치체제에 대한 시각

-정복왕조로서 부족 전통을 유지하는 동시에 한족 통치에 한족체제를 이용하는 이원적 체제

\* 디 코스모(Di Cosmo): 내륙아시아의 시대구분

(i) ‘조공제국(Tribute Empires, 209 BCE~551)’

(ii) ‘조공-교역 제국(Trade-tribute Empires, 551~907)’

(iii) ‘이원적 통치체제 제국(Dual-administration Empires, 907~1259)’=>거란, 금, 몽골초기

(iv) ‘직접징세 제국(Direct-taxation Empires, 1260~1796)’

Di Cosmo, Nicola.(1999), “State Formation and Periodization in Inner Asian History,” *Journal of World History* 10-1, pp. 1~40.

\* 모트

-거란은 초원과 중원의 서로 다른 통치방식을 하나의 체제로 통합, 12세기 다양한 문화의 광대한 지역을 통치할 수 있었고 그 통치체제는 여진·탕구트, 카라키타이가 계승·발전시켜 후대의 몽골제국과 만주 청제국에까지 지대한 영향

-금나라 시기 구분

(i) 1115년에서 1135년 “이원적 제도 시기(The Period of Dual Institutions)”

(ii) 1135년에서 1161년 “중앙집권화 시기(The Era of Centralization)”

(iii) 1161년에서 1208년까지 “토착문화의 반발시기”(The Period of Nativist Reaction): 중앙집권화/한화에 대한 반발

(iv) 1208년 이후 몽골의 공격으로 몰락

#### IV. 정복왕조 시기의 다원적 국제관계

-명대에 복원된 '조공체제'를 접한 16세기 서구인들이 중국 대외관계 방식의 전형으로 오해

-거란·금 시기에는 군사적 세력균형에 따른 다원적 국제관계가 지속

==> '외교적 동등관계(diplomatic parity)'의 틀(Rossabi, 1983)

==> '다원체제(Multistate System)'와 '맹약관계(Treaty Relations)'(Franke and Twitchett, 1994). 특히 송과 거란이 상대방의 영토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연의 맹약이 '다원적 국제관계'의 기본 틀로 120여 년간 양국관계 및 동북아 지역질서 규율

-이 시기에는 영토국가 '중국'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중국문명(Chinese civilization)'이 남북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전개 (Franke and Twitchett, 1994)

-송과 북방민족 거란·여진·탕구트·몽골의 전쟁을 "중국 내전의 특별한 유형"으로 볼 수도

\*도진생: 거란-송 관계에서 대하와 고려의 역할에 주목

Tao, Jing-shen(1988), *Two Sons of Heaven : Studies in Sung-Liao Relations*,

Tucson : University of Arizona Press.

\* 레자드: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에서 한반도 왕조의 중요성. 중원-만주-한국의 삼각관계를 통해 중원 한족왕조의 팽창과 수축의 역사적 순환과정을 이해

Ledyard, Gari K.(1983), "Yin and Yang in the China-Manchuria-Korea Triangle," in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313~353.

-거란·금과 송 사이의 '동등한' 맹약체제와 다원적 국제질서의 현실을 강조하는 서구학계도 그 '주변'에 놓인 탕구트족의 대하와 고려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족중심적 '조공체제'의 용어를 그대로 적용

\* 몽골제국시대에 편찬된 『요사(遼史)』와 『금사(金史)』: 거란과 금의 기록에 보이는 송의 국제적 위상은 '조공국'인 고려나 대하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조공품(즉 세폐)의 규모는 훨씬 많았다. 그럼에도 CHC는 고려와 하를 '조공국(tributary state)'으로 서술하면서도 책봉을 받고 서표(誓表)와 공물(貢物)을 바친 남송에게는 '조공국'의 호칭을 사용하지 않음

\* 고려가 거란의 연호를 시행하고 조공을 하여 '다국적 국제관계의 현실(multi-state reality)'로부터 가려져 있었다는 주장(Rogers, 1978)

\* 고려왕조를 '중국'의 여러 왕조로부터 '책봉'받은 '충성스러운 제후국(a loyal vassal)'으로 묘사(Franke and Twitchett, 1994)

==>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동아시아 세력균형의 한 축을 이룬 고려와 대하의 자기중심적 인 세계관과 역할을 무시 & 중원 '주변'국가들에 대한 서구학계의 학문적 무관심

#### V. 결론

- 고려와 서하를 포함하는 다원적 국제관계에서 '주변'의 위치와 정책을 조명하는 전체론적(holistic) 시각의 필요성: 한족왕조 송/남송 vs. '정복왕조'인 요·금을 넘어 고려와 서하의 시각에서 당시 국제관계의 재조명을 시도한다면 '중심'에만 집착하는 한족중심적·문화론적 조공

제도의 틀을 벗어나 동아시아 다원적 국제관계의 실체에 좀 더 다가설 가능성

◎ 이정신, “고려와 북방민족 관계사 연구현황”; 윤영인 편, 『10~18세기 북방민족과 정복왕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9)

-1980년 이전까지의 연구방향은 전쟁사 위주

-1990년대: 기존 전쟁이나 송 위주의 서술 배제하고 북방민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시각

-2000년대: 고려 외교는 다원적 외교 관계로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고려, 내정과 대외관계의 상관성 주목, 정치·외교 관계에서 경제·문화 방면으로 대외교류의 연구방향이 확대

-고려와 요·금 관계: 조공과 연호 사용을 통한 상징적인 사대 관계, 내정 자율

-몽골과의 관계: 내정 간섭, 실질적 예측 상태

13세기 후반 고려와 몽골과의 강화는 대내적으로 황제국 체제를 지향하였던 고려의 전통이 무너지는 전환점

I. 고려와 거란 관계사

-식민사학: 고려 대외정책의 수동성 강조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성종 때 거란의 고려 침입 목적은 영토 약탈이 아니라, 고려로 하여금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의 발생 원인과 과정을 거란의 입장에서 서술

-식민사학의 극복: 고려측 조명

\*김상기: 태조의 강경한 외교 단절로 인해 발생한 거란과의 갈등이 송과 고려와의 밀착으로 거란의 경계심을 더욱 자극, 전쟁

(거란이 고려에 교역을 청하고 친선의 표시로 낙타 50필을 사신 편에 보냈는데, 태조는 발해를 멸망시킨 무도한 나라라 하여 사신을 귀양보내고 낙타를 굶겨 죽였다)

\*강대량: 왜? 첫째, 거란의 발해 정벌이 고려의 북진정책 방해, 둘째, 발해 유민의 대량 내투에 대한 선무정책, 셋째, 대거란무역이 대송무역에 비해 불리, 넷째, 북방 이민족에 대한 의식적 편견

\*이용범: 성종 때 확보했던 강동 6주는 군사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보주의 각장 무역하는 곳과도 가까워 상업면에서도 중요한 지역. 거란이 계속 이 지역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고려는 각장 설치 거절하고 사신 무역 고수

-거란의 3차례에 걸친 고려 침략, 성종 12년 소손녕 침입에 강동 6주를 획득한 서희의 외교 활동(993)과 현종대 강감찬의 귀주대첩(1019)

\*고려는 거란과 강화를 맺음으로써 일시적으로는 영토가 확장되었지만 항구적으로는 압록강 유역이 고려의 국경선으로 고착, 북진정책 좌절

\* 고려가 거란의 침입을 받은 것은 성종 때 소중화를 추구하는 정치세력이 광범하게 송 문화를 수입하면서 친송 정책을 썼기 때문

II. 고려와 여진 관계사 연구현황

-고려 건국 직후부터 약 300년간, 금나라 건국부터는 약 120년

-윤관의 9성정벌(1108)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윤관의 여진정벌과 9성 개척은 여진의 변경 침략과 고려의 기미주(羈糜州)인 갈라전(曷懶甸)의 여러 부락이 완안씨(完顏氏)에 귀부함을 막기 위해서

-고려 천하관의 존재형태와 성격: 원 간섭기 이전까지 고려는 송·요·금에는 조공국의 형식을 갖추면서도 대내적으로는 황제국 체제의 국가의례와 제도를 가지고 고려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음

\*노명호(1999), 「고려의 다원적 천하관과 해동천자」, 『한국사연구』 105.

\*추명엽(2002), 「고려전기 '번(蕃)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현실』 43.

\*오쿠무라 슈지[奥村周司]: 외교 의례 등을 검토하여 고려의 주체적인 외교 자세와 주변 여러 나라들에 미친 독자적인 지배질서를 거론

奥村周司(1976), 「八關會儀禮に於ける外國人朝賀」, 『研究紀要』 11, 早稻田實業學校; 奥村周司(1979), 「高麗における八關會的秩序と國際環境」,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6.

### III. 고려의 북방민족 관계사 저서 현황

-김위현, 『고려시대 대외관계사연구』 (경인문화사, 2004)

-역사학회,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2006)

고구려와 수당과의 전쟁(임기환), 나당전쟁과 나일 관계(노태돈), 11세기 후반~12세기 전반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와 고려(채웅석), 14세기 후반 원명교체와 한반도(이익주),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질서(한명기)

### IV. 고려와 요·금 관계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와 반향

-고려시대 대외관계사는 송과는 경제·문화적 관계로, 거란 여진과는 적대적 관계로 보는 관점에서 진행

-10~12세기 연구도 송에 비해 요·금사 연구자가 부족 (거란어 여진어 등 언어 문제의 해결)

-고려·거란·송 관계, 고려·여진·남송·서하 등 다각적 관계의 연구 필요성

-역사성이나 민족주의적 요소보다는 지역성을 강조하는 시각의 의미 (김한규의 요동사=한국도 중국도 아닌 제3의 역사)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할 것인가? 역사로부터 국가를 구할 것인가?